

## 2011 년 가을학기

###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---

#### 전체 주제: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43

히브리서에서

(3)

####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

성경: 창 14:18-20, 시 110:4, 히 5:6, 10, 6:20, 7:1-3, 25, 8:1-2

- I. 히브리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,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관한 첫째 요점은 그분이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다—1:3, 4:14, 5:6, 10, 6:20, 7:1-3, 8:1, 9:24, 12:2, 시 110:4.
  - A. 히브리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이며 일 장부터 육 장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항목들은 그분께서 왕이신 신성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필요한 자격들인데,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—8:1-2, 7:11, 25.
  - B. 히브리서에 계시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현재의 그리스도 곧 지금의 그리스도, 오늘의 그리스도, 하늘들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매일의 구원과 순간순간의 공급이 되신다—8:2, 4:14-15, 7:26.
- II. 성경에서 제사장의 기본적 의미는, 멜기세덱의 나타남에서 볼 수 있듯이,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—창 14:18-20, 출 28:1.
  - A.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제사장의 원칙을 세운다—창 14:18-20.
    1. 성경에서 ‘제사장’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이다—18-20 절.
    2.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.
      - a. 멜기세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공급했다—18 절.
      - b.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, 떡과 포도주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되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신선하게 하고 지탱해 주고 위로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—18 절, 시 104:15.
  - B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요점은 그분께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이다—히 7:11, 8:1-2.
- III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왕이신 신성한 대제사장이시다—5:6, 7:1-3, 16, 25.
  - A. 왕이신 제사장 직분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기 위한 것이다—5:10, 8:1-2.

1.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아론의 일로 예표된 반면에 그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것이다—시 110:4, 히 1:3, 5:6, 10, 6:20, 8:1.
  2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의(義)의 왕이시고 평안의 왕이시다—사 32:1, 9:6.
    - a. 멜기세덱은 ‘의(義)의 왕’이란 뜻이고 살렘 왕은 ‘평안의 왕’이란 뜻이다—창 14:18, 히 7:1-3.
    - b. 의(義)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였고 서로에게도 올바르게 하셨는데, 의는 평안을 가져온다—사 32:1, 17.
    - c. 평안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시며, 그러한 평안 안에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—9:6, 히 8:1-2.
    - d. 이러한 의와 평안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누릴 수 있다—마 26:26-28, 고전 11:24-25.
  3. 우리의 왕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—고후 13:14.
- B.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—히 7:25:**
1.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신분의 문제이나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다는 것은 조성성분의 문제, 즉 그분이 신성한 대제사장으로 조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고 계심의 문제이다—16, 28.
  2.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을 살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조성시키며 또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지속할 수 있게 한다—17, 24.
  3.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하는 능력이다. 따라서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임재이고 죽음의 부재이다—16 절.
  4. 신성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신다—25 절.
    - a. 철저히 구원 받는 것은 온전함에 이르도록 구원 받는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구원하고 계신다—2:10, 5:9, 7:28.
    - b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죽음과 죽음의 모든 부산물로부터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—25 상, 11:40, 13:20-21.
  5. 신성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곧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이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맡아 돌보신다—7:25 하, 롬 8:28-29, 34.
- IV.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,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게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신성한 축복과 함께 공급하신다—창 14:18-20, 히 7:1-3, 8:1-2.**
- A.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—창 14:18-20, 히 9:28, 1:6.
  - B.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 위에서 그분을 위해 살고 있고 그분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—딤후 1:18, 6:12, 딤후 4:7.
  - C. 우리가 ‘왕들을 살육하고’ 난 후,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실 것이다.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온 땅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—마 26:29, 창 14:19, 계 10:2, 11:15.